

습근평, 브릭스 협력의 온전한 발전 이끌다

로씨야 대통령 뿌전의 초청으로 중국 국가주석 습근평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 까잔에서 제 16차 브릭스(金砖国家)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3년 이래 습근평 주석은 해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요 연설 발표를 통해 브릭스 협력 기제 구축과 발전, 회원국 확대 등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주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으며 브릭스 협력의 온전한 발전을 이끌었다.

2013년, 습근평 주석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첫 출국 방문으로 남아프리카에 가서 제 5회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동반자 관계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들을 서로 연결시킬 것을 주장했다.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을 통해 브릭스 전략 동반자 관계의 장원한 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브릭스 회의가 일련의 창조적이고 선도적이며 제도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다.

실무 협력은 브릭스 협력의 근간이다.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의 직접적인 조율과 추동하에 브릭스 5개국은 첫 번째 다자 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신개발은행이 승인한 프로젝트는 100여개에 달하고 자금 총액은 340억 달러를 초과하여 발전도상국의 인프라 건설과 지속가능 발전을 힘있게 보장했다.

2017년 9월, 습근평 주석은 하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협력 기제의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여 브릭스 협력의 두 번째 ‘황금 10년’을 개척했다.

2022년 습근평 주석은 북경에서 화상 방식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브릭스 협력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브릭스 협력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추동했다.

이번 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2023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애굽, 아랍추장국련방, 이란, 에티오피아가 브릭스 회원국에 가입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원국 확대 이후 진행되는 회의로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브릭스 협력 기제 발전에 새로운 설계를 작성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동하게 될 것이다.

/ 국제방송

다만스판공화국 행정장관 :

로중 지방 협력 확대 기대

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로씨야 다만스판공화국 까잔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을 앞둔다. 다만스판공화국 행정장관 루스탐 민니하노프는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로 다만스판공화국이 로씨야—중국 실무 협력에 깊이 참여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로중 량국 관계 발전 촉진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스판공화국은 중국 다수의 성·시와 량호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둥·사천성과 우호 관계를 맺었고 산둥·사천·호남·안휘·절강·흑룡강·중경·강서 등 성·시와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까잔은 항주·광주와 우호도시 관계를 수립했고 성도·서안·심수 등 도시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민니하노프는 다만스판공화국은

현재 물류와 운송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말, 모스크바—까잔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는 유럽 서부—중국 서부 국제고속도로 운송회랑중 로씨야 구간의 일부이다. 그는 스비아이스크(斯维亚日斯克) 지역의 복합일관수송물류센터 구축은 유라시아지역의 육로·항공·수로 운송 로선을 연결하는 다만스판만의 독특한 지리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다만스판공화국과 중국간 인문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니하노프는 2,300여명의 중국 류학생이 다만스판공화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대학들도 중국 대학과 엔지니어링(工程),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화넷



10월 20일 찍은 까잔의 도시 풍경

/ 신화넷

까잔 브릭스 정상회의의 3가지 핵심 키워드



9월 26일 찍은 까잔의 구시가지 풍경

/ 신화넷

제 16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브릭스 회원국 확대 이후 습근평 주석과 브릭스 정상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자리이다. 습근평 주석의 까잔 방문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이다.

◇ 키워드 1: ‘빅브릭스 협력’

2023년 8월,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이 각 정상들과 함께 브릭스의 역사적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빅브릭스(大金砖) 협력’의 막이 올랐다. 회원국 확대 이후 브릭스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 글로벌 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더 큰 품격, 역학, 잠재력을 갖게 됐다.

역사적인 브릭스 회원국 확대 이후 ‘브릭스의 대문’을 두드리는 국가가 더욱 많아졌다. 이는 브릭스 협력 기제가 폭넓게 환영받고 있으며 브릭스의 구심력과 응집력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영향력과 감화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대브릭스 협력’의 원년으로 각계에서는 습근평 주석이 각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대브릭스 협력’의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꾸준히 멀리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키워드 2: ‘글로벌 남방’

“발전도상국이자 ‘글로벌 남방’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다른 발전도상국과 호흡과 운명을 같이하고 발전도상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며 글로벌 업무에서 신흥시장국가와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2023년, 습근평 주석의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 연설은 ‘글로벌 남방’의 연합·자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줬다.

브릭스 기제는 ‘글로벌 남방’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소통 채널이다. 이에 습근평 주석은 2017년 하문회의에

서 다른 신흥시장국가 및 발전도상국과 발전과 진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브릭스+’ 협력 리념을 제안했다. 오늘날 ‘브릭스+’는 브릭스가 많은 신흥시장국가 및 발전도상국과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발전을 논의하며 가슴을 열고 협력을 촉진한다. 이번 까잔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정상들의 소규모·대규모 회의에 참석한 한편 ‘브릭스+’ 정상 대화회 등 행사에도 자리했다. 중국측은 각 회원국과 함께 ‘글로벌 남방’ 연련·자강의 신기원을 열고 발전도상국의 공동 리익을 함께 수호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고 저 한다.

◇ 키워드 3: 다자주의

브릭스는 설립 이후 시종일관 개방·포용 및 협력상생의 정신을 견지하고 단결과 자강의 초심을 고수하며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국제 문제에서 긍정적인고 안정적이며 선한(向善)력량을 갖게 됐다.

2019년 11월, 제 11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습근평 주석은 “다자주의를 선양해야 하며 이는 국제적인 일을 한 국가 또는 소수의 몇몇 국가가 좌우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핵심 요지로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 습근평 주석은 까잔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현 국제정세, 브릭스 실무 협력, 브릭스 기제의 발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과 함께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를 리행을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와 관련해 브릭스 국가 및 ‘글로벌 남방’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함께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 신화넷

[국제시평]

기대되는 ‘빅브릭스’의 역할



9월 24일 찍은 까잔의 도시 풍경

/ 신화넷

비전의 상징이 되었으며 세계경제의 공정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대표한다.”면서 “중국이 각측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추동자”라고 평가했다.

세기적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브릭스 협력 기제는 ‘글로벌 남방’의 공동 협상과 협력, 공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시대적 가치가 두드러지며 개방과 포용,

협력상생의 ‘브릭스 정신’은 남남협력의 징표가 되어 감화력을 발산하고 있다. 동시에 이 협력 기제는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도상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국에 글로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함과 기회를 제공해준다.

초창기 회원국인 중국은 브릭스 협력 기제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참여자

로서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중국측과 기타 ‘브릭스’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불안정한 현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글로벌 남방’의 연합과 자강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빅브릭스 협력’의 역할 또한 기대할 만하다.

/ 국제방송